

학교 혁신을 위한 학교 시설의 재구조화 방안

A Restructuring Plan of Educational Facilities for Innovating School



서 길 원 / 보평초등학교 교장
Seo, Gil-Won / Principal, Bopyeong Elementary School
ssggww@chol.com

1. 들어가는 말

21세기를 맞은 오늘날 선진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의 물결 앞에 인적 자원을 개발 넘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훨씬 급진적인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아이폰의 진화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다중(多衆)의 참여와 소통에 의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업적 효율성의 세계에서 집합적 창의성의 세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분과 학문의 경계 파괴, 학문과 지식의 융·복합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이질적인 집단과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교과, 분과로 대별되는 학교 교육이 필연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 정보 사회의 폭발적인 지식의 양과 전파 속도는 산업사회에서 독점적 지식 정보 전달자였던 교사의 권위와 학교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 산업사회의 인력 생산 요구에 맞게 창안되어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학교제도와 시설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실붕괴, 학교폭력, 학력저하, 학교 이탈 학생 증가, 사교육 의존도 심화 등 내부적으로 심각한 학교의 문제 또한 근대 학교를 획기적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학교교육 그 자체도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통제와 관리, 교과와 분과위주의 근대 학교 틀을 개방과 협력, 집단지성과 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 낼 수 있는 학교구조와 학교 환경의 학교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학교 재구조화와 시설 환경

2.1 관리와 통제 시스템

사회 전반의 분권화·자율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은 여전히 상명하달(Top-Down)의 정책과 관료주의적 행정 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획일적 통제구조는 교육 주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오랜 수직적·관료적 통제 문화 속에서 교사들의 자발성은 약화되고,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업무 관행이 고착됨으로서 고립적·개인주의적 교사문화가 형성되고 집단적 효능감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에서 교사들의 패쇄적이고 고립적인 교실주의 문화는 교육적 상상력을 제한시키고 협력적 창의성을 제한시키고 있다. 근대학교의 특성상 위로부터 주어진 행정 업무와 국가 교육과정 업무를 교실 단위로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구조이다. 동료 교사와 책무성과 협력은 미약하고, 교실에서 교사의 개별적 책무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시스템은 교실에서 교사의 개별적 교수활동과 이를 장학하는 감독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공간의 배치 또한 일반적으로 관리와 통제, 업무의 효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각 부서실로 구분되는 행정 업무 기능과 교실에서는 이루어지는 교수 공간이 있다. 행정과 교수가 분리되고, 교실과 교실이 단절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시스템에서는 교사의 협업적 활동이나 상호관계를 통한 전문성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학이나 연수활동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관리형 학교시스템의 재구조화는 학교시설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기존 행정실과 교무실을 지원실로 개명하였으나 시설 환경은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의 개방성을 높이고 교무행정지원실로 통합을 촉진토록 교육 시설 기준령 개정도 중요하다 여겨진다. 또한 학교 표준 설계안에 있어서도 교실의 개방성을 높이고 협업을 촉진토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무행정의 효율화, 교장실을 정점으로 이루어진 교직원의 동선구조, 감독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정업무실, 간부회의실, 접대실 등 업무 기능 중심의 공간을 구성원의 소통과 공동 작업을 중심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2.2 협업적 교육활동 중심 학교조직

교사들이 업무의 특성상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실행학습 활동을 통한 참여와 역동성은 교수활동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케 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한 교실의 개방성, group work가 필요한 공간의 배치, 팀별 활동과 참여를 유도하는 시설 환경은 협동과업 수행과 공동 실천 등 협력 시스템을 촉진케 한다.

내 교실, 내 반 아이 중심의 개인적 실천 중심의 학교문화는 고립적, 배타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학교 풍토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풍토는 교실주의, 교과주의, 활거주의, 분업주의, 편의주의의 교직문화로 이어지게 된다.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 학교, 우리 학교 학생 중심의 공동체 학교로 전환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중심의 학교조직은 교내 인사 시스템과 업무조직의 혁신 못지않게 시설 환경 및 공간 재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료성, 공유, 협력 기회, 상호 지원 등 집단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학교조직과 시설환경은 교사간의 협력적 활동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창의적 교육활동을 촉진케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학년군 단위 학교 배치를, 중등학교에서는 교과군 단위로 배치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는 연령에 따른 정서적, 신체적 발달 단계와 학생 안전 보호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하겠다. 교육과정 구성 역시 저학년은 통합형 교과 구성과 담임중심의 활동중심 교육활동으로 편제가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 초등학교 학교 배치는 학년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학교 시설의 배치 구조이다.



사진 1. 다니쿠나아시로가와 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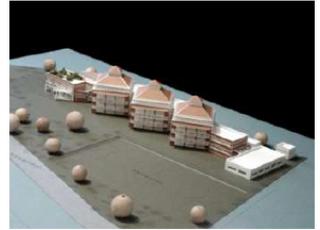


사진 2. 전북진봉초등학교모형



사진 3. 핀란드 아르벤파고등학교

중등학교에서는 인문 교과와 예능교과, 자연과학교과, 체험실습교과 간의 교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 중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 진로, 학습 수준 등 학습선택권을 고려한 교육과정 시스템이 아닌 국영수 교과 위주의 우열반 이동학습에 치우쳐있다. 학교시설 환경이 학습자의 발달단계,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학습자 중심 새로운 학교시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교사의 교수활동 중심의 교실배치 구조를 학년군, 교과군 단위로 공동작업, 팀티칭, 공동수업 등 교육과정의 공동실천, 연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2.3 IT 기반을 이용한 스마트 러닝 교실

오늘날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잡화 같은 새로운 환경 앞에 학교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학교정보화 시설 구축을 통한 교실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교단 선진화사업에서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 교실 환경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실 환경 변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자에게 고른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습의 다양화, 학습의 개별화,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 등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이버 학습, 클릭수업, 영상매체 수업 등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수업으

로 인한 효율성주의와 공학주의가 지배하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에 교단선진화가 추진된 이후 풍금소리가 사라지고 노래방 PC로 음악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음악이 기능 교육으로 변질되면서 음악적 교감(交感)이나 인성교육이 사라진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도 스마트 중독이 관계 장애를 낳는 등 사회 문제화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니터로 배우는 교육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학습 상황에서 관계의 단절이 커지고 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단지 지식의 효율적 전달만이 아닌 감성적, 인성적, 영성적 교감이 촉진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체에 의존한 교수활동은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유년기에는 구체물을 이용한 조작활동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자료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실 스마트 환경구축은 교수학습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과 특성, 학습자와 교사의 관계 증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문자 중심의 교수활동이 영상이나 사이버 매체 수업으로 대체하는 수업환경이 꼭 현대화된 교실이라 할수 없다.

다양한 조작활동, 체험활동, 협동활동, 구체적 조작활동을 증진하고, 학생간의 협력적 활동이 촉진되도록 전면 교수 칠판으로 집중되는 네모난 교실 환경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2.4 다양한 삶의 경험을 위한 공간

21세기 사회의 특징인 열린사회, 통합사회, 인간주의 사회로 사회적 변화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체제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 차원에의 근대적 학교환경의 재구조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교실붕괴, 7만 여명 중도 탈락 학생, 학생 자살 증가 현상은 총체적 학교 위기로 보여 진다. 지식 전달과 인재 선발이라는 두 축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근대학교의 독점적 지위와 역할에 한계가 다 달았다는 반증이다.

텍스트 위주의 교육활동과 시험을 통한 선별과 경쟁 구조로 유지되는 학교 모형은 학생 자신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곳 일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의 삶은 오히려 교과외적인 생활과 잠재적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점에서 학교는 표준화된 교과를 이수하기 위해 있는 공간으로서가 아닌 학창시절을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이어야 한다는 복지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으로는 교과와 입시위주의 교육을 창의력과 융합적인 사고능력 신장 교육, 미래의 핵심 역량¹⁾을 기르는 교육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과정인 언어, 정보, 텍스트 활용 능력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관계능력, 개인의 흥미 생애 계획 등 실천적 행동 능력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입시와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정화된 교실, 담임중심의 교실 형태, 가변성이 부족한 교실 등 획일화된 학교환경 또한 교과통합 수업, 협력 수업 등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다양한 수업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그간 학교 시설 환경 투자 역시 교실 정보화, 도서관, 컴퓨터실, 어학실 등 지식과 정보교육 관련 부분에 투자가 집중화 된 반면 예체능 교육을 위한 음악실, 미술실, 공연장, 체육관, 노작활동 활동을 공작실, 조리실, 생태학습장 등 체험활동을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기준에 맞추어 25명 이하로 낮추거나,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체육활동, 문예활동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의 관점에서 학교 공간을 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간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 취미 활동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제 학교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인프라 구축과 복지적 관점에서 학생의 삶의 공간으로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3. 나오는 말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1) OECD에서는 이른바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고 지식을 상호융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능력을 길러야한다고 지적한다. 3개의 범주에 9가지 핵심역량을 추출했다.

범주 1 : 도구의 상호작용적 이용

- 언어나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범주 2 :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

-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 협동할 수 있는 능력
-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범주 3 :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 생애 계획과 개인적 프로젝트를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권리와 흥미, 한계와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날로 커지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형 학교 체제에서 벗어나 미래형 학교 체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데 있어 학교 건축적 대응 방향은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미래형 학교의 구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 교육정책 및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교육학계의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이에 비해 건축적 대응 방안은 연구가 부족했다.

미래형 학교는 교육적 상상력이 자유롭게 수업으로 발현되는 학교, 학교 구성원 상호간 소통과 관계성이 회복된 학교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건축적 대응으로 개방성과 협력성, 다양성과 가변성, 관계성과 자율성 등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 1) 관료주의와 개인주의적 교사문화를 극복하고 하기 위해 교실과 학습공간의 개방성과 업무공간에 있어 상호 연계성, 통합성을 높여한다.
- 2)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활동 중심의 공동체적 학교로 전환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학년군, 교과군 단위로 교육과정의 운영의 자율권과 협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실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교실 스마트 교실 환경구축에 있어 교수학습의 효율성보다는 학생의 발달 단계, 교과 특성, 학습자와 관계 증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4) 다양한 삶의 경험의 공간으로 학습자의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주어진 교과활동과 주어진 교실 이외에서도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형 학교는 단지 교사와 학생간의 교수활동 즉 효율적인 교과 지식의 전달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 미래형 학교가 단지 시설의 현대화가 아니라 실내외 공간의 연계성, 공간의 다양성, 개방성에 따라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 협력과 공유의 교직 문화를 촉진하는 지, 학교 조직과 시설 환경이 새로운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지, 창의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더 많은 연구 사례가 필요 하겠다.

참고문헌

1.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기본문서. 2011
2.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미래형 창의지성 학교 모델 구축 연구. 2012
3.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아카데미 리더과정. 2013